서남해 도서지방에 땅기운 불어넣어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땅의 숨결을 따라 〈21〉

■ 관두산의 신부천재혈

해남읍의 풍수적 입지는 밖으로는 요새보다 더 높고 견고한 천시원(天市垣)의 성곽과 바다가 둘러있고, 안으로는 금강산이 박환낙맥(剝換落脈)하여 사신팔장(四神八將)이 옹위하면서 구중궁궐처럼 개국하였다. 다만 청룡과 조안이 너무 높고 웅장하여 백호와 현무를 억압하는 형상이니 한 집안으로는 장손과 종손이 아니면 더불어 살기가 어렵고, 종교적으로는 유교와 기독교가 번창하는 반면 불교와 도교는 밖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사회적으로는 주인의 힘이 너무 고강하여 일반 근로자나 서민이 연명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지세이며, 기질적으로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게 형성되는 땅이다.

토반들이 큰 힘 얻는 형국

더군다나 자좌오향의 동사택 중심으로 발달된 읍내에 천시원의 정문인 석문산의 석문이 생기방(生氣方)에 위치하고 있어 토반들에게는 더더욱 큰 힘을 얻는 형국이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 석문을 드나들어야 할 일이 없다. 백호방(白虎方)인 곤신수구(坤申水口)마저 관쇄 되지 못하고 열려있으니 삶의 역정이 형극의 길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우슬재로 큰 길이 뚫리고, 열려있던 수구에 간척지가 조성되면서 자연스럽게 비보가 이루어졌다. 증의도와 그 주변의 섬들이 수구나성(水口羅星)이 되고, 관두산이 수구를 지키는 한문이면서 관두산의 수많은 신석들이 북신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 천시원의 새로운 수호신장(守護神將)으로 후천하원갑자시대(後天下元甲子時代)의 해남을 지키고 있다.

해남군 화산면의 해안가에 있는 관두산에 관해 '세종실록지리지'(1454)와 '동국여지승람'(1481)에는 "고려 때부터 중국(송)의 남경과 교역을 하던 개항지이자, 해남의 남쪽 40리에 있는 관두량의 진산으로, 조선의 세종 때부터는 봉수대가 설치되어 남으로는 한반도 최남단인 땅끝의 갈두산과, 서쪽으로는 진도의 첨찰산과 서로 조응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도깨비가 하늘의 재물을 훔쳐온 관두산 신부천재혈의 천재(天財)

또 관두산 풍혈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그 신비함이 전설처럼 전해져 오고 있지만, 1872년에 편찬한 '호남읍지'의 '해남편'과 1925년에 발행한 '해남군지'에도 "석굴 가운데에서 찬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풍혈이라고 한다" 는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기록과 뜬소문에 귀가 솔깃하여 몇몇 도반과 함께 관두산을 심방한 소회는 "산이 높지 않아도 그곳에 신선이 있으면 명산이요, 물이 비록 깊지 않아도 용이 살고 있으면 신령스러운 곳이다(山不在高有仙則名, 水不在深有龍則靈)"고 노래한 유우석의 누실명(陋室銘)이 불현듯 떠오를 만큼 신령스럽고 기묘했다.

그곳은 한강 이남에서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24채의 도깨비 집이 밀집해 있었다. 소위 풍혈로 알려진 곳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수십 개의 도깨비 뿔과 방망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위쪽에는 물도깨비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아래쪽에는 집도깨비들이 터를 일구고 살면서, 해남은 물론이고, 진도와 완도지역의 지맥을 연결시킨다. 지기를 조절하는 신부공사를 밤낮으로 수행하는 신궁이 숨어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관두산 산정에서 갑묘로 낙맥하고, 임감으로 전신하여 행룡한 다음에 다시 회두하여 용삼호사의 병오룡(丙午龍)에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개구(無開口) 요뇌(凹腦)의 천재와혈(天財窩穴)이 작혈한 형상이다. 대장 도깨비의 집으로서 범안으로는 알아볼 수 없으며, 그저 기묘하고 괴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개발 바람에 풍혈 훼손 우려

이 혈은 한반도에 하나밖에 없는 신부천재혈로서 희귀한 괴혈이다. 은하수안에 손신(巽辛)이 특립하고 갑묘가 고기(高奇)하며 북두칠성이 조림(照臨)하여 한반도의 국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천장지비(天藏地秘)의 혈이다. 다시 말하면 이 혈은 백두대간에서 서남해안의 도서지방으로 지맥을 연결하여 지기를 공급해주는 소위 파워플랜트 역할을 하는 곳이다

다행히도 관두산 신부혈 스물 네 곳 가운데 아직까지는 단 한 군데도 묘를 쓰거나 집을 지은 곳이 없어서 지기의 흐름이 원활하여 후천하원갑자의 원운이 확산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근래에 관두산의 풍혈이 외부에 알려지고, 그곳에 온천수가 매장된 것으로 부풀려지면서, 이를 개발해 눈먼 돈을 벌어 졸부(猝富)가 되고 싶은 일부 관료와 주민들에 의해 관두산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 같다.

참으로 근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에 관두산 신부혈들이 일부라도 파혈된다면, 민초들의 삶은 다시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종주 호남대 교수·한국 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 전라도 역사이야기

-진도 용장산성…또 하나의 고려정부

삼별초 환도 거부…진도행 용장산 기슭에 왕성 건설

1270년 5월 23일 고려의 원종은 개경으로의 환도를 단행했다. 몽골군의 침략으로 강화도에 천도한 지 38년만의 일이다. 당시 유라시아대륙을 석권한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던 몽골제국의 군대를 상대로 40년 가까운 세월 굴복하지 않고 저항해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지만, 결국 개경환도 조치로 고려의 기개는 꺾이고 말았다.

그러나 대몽 항쟁의 주력부대였던 삼별초 군단은 개경환도를 거부하고, 개경의 고려조정을 부정했다. 급기야 그들은 6월 1일 왕족 승화후 왕온을 추대하여 고려의 황제로 삼고 고려왕조의 정통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6월 3일 강화도를 떠나 진도로 향했다. 그간 대몽 항쟁에서 동지적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해온 서남해지역의 해상세력과 연대하기 위함이었다. 삼별초 일행은 배중손 장군의 지휘 하에 강화도의 인원과 공사재물을 1,000여척의 배에 가득 싣고서 70여 일의 항해 끝에 8월 19일에 진도 벽파진에 당도했다.

진도에는 이미 거대한 산성이 있었다. 통일신라 때부터 축조하기 시

진도 용장산성의 왕궁터

작하여 수축을 거듭해오던, 총연장 12km에 달하는 용장산성이다. 삼별초 일행은 이곳에 입성하여 정비·보강하는 한편 용장산 중심부 산기슭을 다듬어 왕성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개경의 만월대와 강화의 고려궁터가 그렇듯, 고려의 왕궁은 산기슭의 경사면을 활용하여 축대를 쌓고 건물을 입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특징이다. 용장산성에 건설한 왕궁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려왕조의 정통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자임한 터라, 진도의 왕궁은 자못 웅장하게 건설되었으니, 이로써 '개경정부'에 대응한 '진도정부'의 체제가 갖추어진 셈이 되었다.

진도정부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어 갔다. 진도에 입거한 지 3개월 만에 제주도를 점령하였고, 서남해의 주요 섬들을 점령하여 일종의 해상왕국을 건설하였다. 전국에서 진도정부에 투항해오는 무리들이 뒤를 이었고, 삼남지역(전라·경상·충청)을 석권해 갔다. 더 나아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몽고와의 항쟁을 위한 군사적 연대를 시도하기도 했다. 최근에 일본에서 발견된 진도정부의 외교문서에 의하면 자신들의 진도 입거(入居)를 천도의 차원에서 단행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시 고려 정부는 명실상부 2원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위협을 느낀 '개경정부'는 몽고군과 연합군(여몽연합군)을 결성하여 진도정부를 집중 공격하였으나 연전연패였다. 그러나 결국 여몽연합군은 비책을 써서 1271년 5월 15일에 방심하고 있던 진도정부의 군대를 무너뜨렸다. 진도정부의 황제 왕온은 침계리 고개에서 사로잡혀 참수당했다 전하고, 배중손 장군은 굴포리에서 전사했다 한다. 이로써 진도정부는 무너지고 말았으니, 침계리 고개에 왕무덤이라 전하는 고분 1기가 쓸쓸하게 그 최후를 전한다.

/강봉룡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 전라도 방언 (20)

'며느리'를 '미너리'로

현행 '표준 발음법' 제3항에 "표준어의 모음은 21개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중에는 단모음 10개와 'ㅐ·ㅔ…, ㅘ·ㅝ…'등 11개의 이중모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전라도방언에서는 이중모음이 대개 단모음으로 발음된다. 그 까닭은 되도록 발음 노력을 줄이려는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리하여 표준어에서의 'ㅕ'는 ㅔ/ㅣ(며느리→메느리/미너리, 멸치→멜치/멜, 뼈→뻬/뻽다구/삐/삡다구/삣닥, 벼루→베루/비루, 별→벨/빌, 볕→벳/붑빗)나 'ㅓ'(겨(糠)→저, 겨울→저실, 겨드랑→저드랑/저탕)로 ; 'ㅐ'는 'ㅏ'(뺨→빰/빰다구, 달걀→달갈/닥알로, 또 'ㅟ'는 'ㅜ'로 발음한다. '갈퀴→갈쿠/갈키, 귀신→구신/기신, 당나귀→땅나구, 바위→바우/바구, 바퀴→바꾸/바쿠, 방귀→방구, 위에→우게'처럼.

이중모음 가운데 'ㅢ'는 전라도 지역에서는 거의 (ㅡ/ㅣ)로 발음된다. '의사→으사/이사, 의원→으원/이원, 의견→으견/이견'등. 'ㅢ' 앞에 자음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처럼 이중모음 '의'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다만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이 돈 주 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벌깨덩굴

꿀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식물로 깊은 산속 그늘진 곳에서 무리를 지어 자라며, 키는 20~50 cm정도로 반덩굴성이다.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개화 시기는 5~6월이다. 민간에서는 강장 및 대하증에 약재로 사용하며, 꽃에 꿀이 많은 밀원식물이기도 하다.

/라규채 생태사진가